

## <2010년 8월 3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산에서 노루나 산짐승을 보면 어떤 사람은 구경하고, 어떤 사람은 잡으려고 쫓아간다. 구경하는 자는 누구이며 쫓아가는 자는 누구이겠느냐.
2. 사냥꾼이 되어야 사냥하지, 구경꾼이 되면 평생 구경만 하고 끝난다.
3. 구경꾼과 일꾼 중에 누가 크냐.
4. 주님은 일꾼을 찾으신다.
5. 구경꾼은 타인이며, 일꾼은 주인이다.
6. 관광객은 객이요, 일꾼은 주인이다. 언제나 그러하다.
7. 월명동도 구경꾼 만 명이 지나가면 변화가 없다. 일꾼 한 명이 지나가면 그 날 변화가 일어난다. 신앙 세계에도 그러하다. 변화를 일으키는 자, 주님이 동행하는 자다. 그 일꾼이 있어야 시대가 변화되고,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변화가 일어난다.
8. 시대 중심자, 사명자는 하나님의 청지기요 일꾼이다. 그들이 지나가야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부활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